

휴식의 3대 법칙

— 엘리야의 휴가를 중심으로 —

성인경

다음과 같은 사람은 휴식이 필요 없습니다.

1) 평소에 하는 일이 별로 힘들지 않은 사람. 평소에 하는 일이 힘든 사람, 즉 그것이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하는 일이 힘들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2) 아프기 전에 틈틈이 잘 쉴 줄 아는 사람. 몸과 마음이 아프기 전에 쉴 줄 아는 사람은 휴식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아파도 쉴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3)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목표가 분명하고 원대한 비전이 있어도 흔들리기 쉬우며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리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휴식이 전혀 필요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휴식이 간절히 필요 없는 사람 같습니까? 만약 당신이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쉬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약이 ‘피로회복제’라고 합니다.

사실 쉬는 것이 제일 좋은 약이지만, 피곤해도 쉴 수가 없는 형편 때문에 ‘약이라도 먹고 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은 ‘피곤하다.’ ‘쉬고 싶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잘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휴식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1. 영적 거인도 지치는 시대

세상에 지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봅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도 지쳐서 쓰러졌으니까요. 한 때 그는 능력의 선지자요, 믿음의 대장이요, 불의 사자(使者)였지만 지쳤습니다.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탈진(脫盡)한 것입니다. 다행이도, 그는 자신이 탈진했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적절한 휴식을 취했고, 멎진 휴식을 취한 후에는 그 전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먼저 그가 얼마나 대단



이 문서는 라브리공동체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및 소량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the online library of L'Abri Fellowship Korea. All copyright belongs to the author. Printing, copying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personal and group study.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공동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 (+82) 033-673-0037 ✉ yangyang@labri.kr

www.labri.kr

한 인물이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1) 엘리야는 한 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아합 왕이 시돈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기자, 기근을 선포하고 하늘에 비를 그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서 비를 그치게 하거나 비를 오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일로 아합 왕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엘리야는 강가로 도망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했던 믿음의 대장이었습니다.(열왕기상 17:1-7) 여러분은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밥으로 살아 본 적이 있습니까?

(2) 엘리야는 한 때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사는 과부의 집에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얻어먹고, 그 여자의 밀가루 그릇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도록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쌀통과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여 그 여자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는,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여 살리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열왕기상 17:8-24)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3) 엘리야는 한 때 ‘용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이긴 사람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마른 나무로 만든 제단에도 불이 붙지 않았으나 엘리야는 물을 부은 나무로 만든 제단에 불을 붙여 제물을 다 태우게 했던 사람입니다.(18:20-40) 여러분도 젖은 나무에 불이 붙게 한 적이 있습니까? 갈멜산 사건 후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반가운 비가 쏟아지자 아합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갈 때, 엘리야는 아합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린 사람입니다.(열왕기상 18:45,46)

모든 사람이 다 지쳐도 엘리야만은 지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당대 누구도 따라 갈 수 없는 영웅이며, 영적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거인도 많은 일을 하고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물며 자살 충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나약함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전해 줍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하고...” (열왕기상 19:4)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지치면 별 수 없는가 봅니다. 당신도 엘리야처럼 지치고, 죽고 싶을 때가 있고, 형편없이 나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만약 당신이 “지치는 것이 뭐냐?” “피곤이 뭘데?”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엘리야의 휴가법(열왕기상 19:3-21)

첫째, 엘리야는 일상 업무를 멈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업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것으로부터 멈추거나 벗어나지 못합니다. 맡은 일이 중요하고 일하는 습관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숨겨진 지혜 중에 하나는 그가 평소에 하던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

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악의 화신”이라 불리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로부터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알신과 그 제사장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로, 거기서 또 호렙산으로 적어도 300km 이상 도피여행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나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300km’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주일 이상 걸리지만, 피곤에 지친 사람이거나 허약한 사람에게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가 찾은 곳은 ‘로렘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가 쉬었던 곳은 화려한 호텔이나 안락한 리조트도 아니었고, 시원한 한 그루 나무 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몇 가지 적용을 찾아보겠습니다.

(1) 중요한 것은 직업적인 “자기 일(his own work”, 히브리서 4:10)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밥 먹을 겨를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마가복음 6:31)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래 ‘안식일’을 뜻하는 ‘사바트(Sabbath)’란 말은 ‘일을 쉬다’, ‘일을 중지하다’는 뜻이며, 평소의 직업적인 일을 쉬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이세벨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쉬는 것이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손봉호도 “돈, 권력, 명예와 같이 다른 사람과 심각하게 경쟁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휴식이다.”¹⁾고 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직업적인 힘든 일을 피하는 것이 마치 비급한 도망처럼 보이는 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한 적이 있고, 다윗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한 적이 있듯이, 너무 힘들 때나 이길 힘이 없을 때는 도망이 최상의 쉬는 방법입니다.²⁾

(2) 휴가 장소는 각자 자기 사정에 맞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외 관광이나 호화판 여행을 한다고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 따라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파이브 스타’ 호텔에서 잤더니 좋았다고 해서 같이 흥내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면, 작은 오두막이나 텐트 밑도 좋고, 값싼 리조트나 펜션, 콘도, 혹은 고향집도 좋습니다.

비록 화려하고 비싼 곳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초가집이나 원룸이면 어떻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되 평소에 살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살아도 좋습니다. 저희 가족이 서울 집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전화를 끊고 대문을 걸어 잠근 후에, 모두 휴가를 떠나고 텅 빈 서울의 고궁이나 박물관이나 화랑을 섭렵한 적이 있습니다.

(3)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분은 “휴가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일할 시간도 모자라는데.”라고 말하다가, 병이 걸리고 난 후에 쉬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휴식의 이상적인 주기는

1) 손봉호, 잠깐 쉬었다가, 흥성사, 1911

2)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이 필요합니까? 1)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쉰다는 것을 직업적인 일을 쉬는 것이고, 2) 공부하는 학생이 쉰다는 것은 공부를 쉬는 것이며, 3)텔레비전 중독자가 쉰다는 것은 ‘TV금식’을 하는 것이고, 4)인터넷 중독자들은 컴퓨터를 안 켜는 것이고, 5)나쁜 친구들과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은 친구를 당분간 안 만나는 것이고, 6)엘리야처럼 늘 같이 다니던 사람이었던 종이나 직원이거나 가족으로부터 잠시 떨어지는 것이고, 7)핸드폰이나 전화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1) 옛세 동안 일하고 이레째는 쉬는 것입니다.(창세기 2:2,3; 출애굽기 31:12-15) 어떤 사람은 할 이상의 충분한 휴식이 요구되는 정말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 사정이 허락한다면 안식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5-6년을 일하고 난 후에 1년을 쉬는 것 말입니다.

3) 모든 것이 여의치 않으면 “72시간 휴식(3박 4일)”을 제안합니다. 제가 직장인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방법인데, 아무리 일이 바빠도 주말을 이용하면 72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장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1) 누구나 공부나 일에 미쳐서 자기가 병이 드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처럼 격렬한 영적 전쟁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지치는 줄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사는 이유도 없고 사는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정신을 차리고 살기 위해서’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3)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놀지 않기 위함입니다. 정기적인 휴식을 정해 놓지 않으면 기분 내키는 대로 쉬다가 아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실컷 자는 사이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치유자이신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가 실컷 먹고 자도록 해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너는 평소에 바빠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했으니, 이제부터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부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신이 지칠 때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맛있는 음식을 공급하시고 실컷 자도록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야 기껏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통’이 전부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친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었고, 자살하려고 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1) 지친 사람이 회복되는 데는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가 급하고, 영적 회복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배불리 먹고 깊은 잠을 자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도부터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부터 들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잠 못 잔 사람들에게는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을 떠나서 공부하던 학생들이나 복잡한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나 악한 영과 씨름하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충분한 잠과 맛있는 음식’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들판에서 수 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고, 2)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성만찬이 그렇고, 3)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주신 것이나, 4)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과 빵을 드신 것도 그것입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물도 한 그릇 줄줄도 모르면서 “기도부터 하라.”, “말씀부터 들으라.”고 한다면 “네나 잘 하세요.”라는 소리를 듣기 쉽겠지요? 물론 먹고 자는 것을 제쳐두고 기도부터 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부터 읽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진한 사람들은 먹고 자며 힘부터 얻어야 합니다.

(2) 먹고 마시는 것은 ‘코이노니아(koinonia)’, 즉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지 배만 불러거나 잠만 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열왕기상 19:5,7)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었다.”(열왕기상 19:6)고 합니다.

여기에 “어루만지며(nahga)”라는 말은 ‘만지다’, ‘손을 대다’, ‘치다’, ‘여자와 함께 눕다(결합하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새 힘을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이 때 비록 떡 한 덩이와 물 한 잔 밖에 얻어먹지 못했지만 “네가 영적 전쟁을 하느라 참 수고가 많았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마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밥상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밥을 한 그릇 얻어먹는다는 것은, 단지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그릇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깝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만듭니다.³⁾ 본래 “안식일(sabbath)”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쉬신 날이 안식일이었으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축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는 안식은 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 공포와 불안 그리고 좌절로부터 평화와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안식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메누하(menuha)’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용어인데, 1)노동으로 인한 피곤한 심신의 휴식이나 2)불안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 후에 찾아드는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3)온갖 어려움과 환란에서 벗어난 가정의 안정이나 4)죄로 인해 고통 받던 영혼과 육체의 구원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는 부르는데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밥을 먹는 이유가 없듯이, 실컷 먹고 난 후에 ‘평화와 새 힘’을 얻지 못하면 먹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도,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회사나 가정의 짐을 다 털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불안 그리고 좌절과 죄로부터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 그리고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마태복음 11:28-30) 여러분도 온갖 고통과 불안과 좌절과 죄로부터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평화를 마음껏 맛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실컷 자고 배불리 먹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진짜 안식은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렘나무 밑에서 실컷 먹고 마시고 쉬 후에는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호렘산까지 300km를 걸어가서 작은 동굴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비전을 받았고, 평생 살아왔던 것보다 더 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 엘리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야는 휴가 전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이제 내가 할 일은 다했다.”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 어머니나 아내나 친구가 대접하는 접시 위에는 밥만 담겨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디스 웨퍼 여사가 종종 이야기했듯이, 밥그릇에는 다음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이 담겨 나오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을 위해서는 피로 회복제가 담겨 나오고, 자살 직전의 좌절한 사람을 위해서는 희망이 담겨 나온다.”

마치 “빨리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뭐 하느냐.”라는 말투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19:9,13) “그것은 “엘리야에게 펼쳐질 제2의 인생”을 여는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이나 이세벨과 싸우는 국내적인 일이 아니라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일이었습니다.

1)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던 일을 선지자 일을 계속할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했습니다.

2) 이웃 나라 사람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 즉 시리아의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열왕기하 8:13-15) 물론 엘리야가 직접 하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 하셨습니다.

3)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즉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열왕기하 9-10장)

물론 사실 이런 사명은 그가 평생 동안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데는 목숨을 같이할 동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 주셔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외롭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도 휴가 후에 이런 거창한 비전을 가지게 된다면 결코 휴가에 투자한 시간이나 돈이 전혀 아깝지 않겠지요?

(2) 엘리야는 배나 더 노련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13-18을 보면, 엘리야는 그 어느 선지자보다 능력 있고, 배짱 있고, 지혜로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가 아합 왕의 후임인 북 이스라엘의 아하시야(Ahaziah)왕이 병이 들었을 때 에크론의 바엘세불 우상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올 것인지 그 여부를 묻고 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 왕의 사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에 그것을 물을 신이 없어서 바엘세불에게 가느냐?”며 가로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아하시야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산으로 올라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왕이 보낸 50 부장을 엘리야가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서 죽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왕이 세 번째 50 부장을 보냈을 때는 왕에게 나아가서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세 번이나 아하시야가 무력 시위 앞에서 겁이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면전에 서서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1:16), 그리고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죽으리라.”(16)고 경고할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 때 아하시야가 보낸 사자(2,9,11,13)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3,15)와의 충돌에서 볼 수 있는 문학적 언어 놀이가 돋보인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올라간다.(3,6,7)”

“왕의 사자들은 내려오라고 한다.”(9,11)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병사들을 죽였다.”(10,12)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간다.”(15)

“왕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4,6,16)

어떤 구약 연구가는 말하기를, “이것은 이방 선지자 발람(Ballam)과 대조된다.(민수기 22:1-24:10)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모압 왕 발락(Balak)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발람은 세 번이나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발락의 끈질긴 뇌물공세에 속아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우상숭배와 모압 여자와 음란을 행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하라는 묘책을 가르쳐 준 것과는 크게 다르다.(민수기 24:11-25:9)”

수많은 지도자들은 권력과 돈, 섹스 앞에서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것을 이길 노련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휴식을 보내고 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엘리야는 어느 선지자보다 능력 있고, 배짱 있고, 지혜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설 줄 알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에서 새 힘을 얻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3)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의 휴가는 허사였을 것입니다. 휴가를 보내다 보면 하이라이트(highlight)가 있기 마련인데,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19:11,12)

여기의 “세미한(다크 테마마, small whisper, tiny silence)”이란 말은 ‘귀에 들릴 듯 말 듯 한 조용한 음성’, ‘지나치기 쉬울 정도로 고요한 소리’라는 말입니다. 천둥소리나 번개소리나 지진 소리같이 요란하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마치 친구에게 부탁하듯 엘리야에게 조용하게 새로운 업무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둥같이 직통계시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까? 그것은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나 그런 소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책을 읽다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귀에 들릴 듯 말 듯 한 조용한 음성’, ‘지나치기 쉬울 정도로 고요한 소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휴가를 망치는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혼자 떠들거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다보면, 가족들과 피터지게 싸우거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만 안기고 다시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놀기만 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중에는 신나게 놀아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반쪽 진리입니다. 신나게 노는 것은 좋으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없이 혹은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 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휴가를 떠나기 전 보다 더 피곤하거나 허전할 가능성이 큼니다.

휴가 중에 계속 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를 가면서 일거리를 갖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휴가를 가서도 변함없이 업무를 처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휴가 중에는 일을 해도 덜 피곤하다.”는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업무에 복귀한 후에 다시 휴가를 가야 할 정도로 빨리 피곤해 지거나 반쪽

휴가를 보낸 댓가를 다시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호텔에서 먹고 자고 쉬었다고 하더라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음란한 짓이나 포르노 시청, 세상 돌아가는 온갖 시끄러운 소리만 떠들다가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쓰고 쉬지도 못했다.”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불평을 늘어놓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를 너무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맺는 말씀

휴식의 적(賊)은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고참이나 동료도 아니고 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나(출애굽기 20: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30)는 말씀을 보면, 쉬지 않는 것 혹은 안식을 누리지 않는 것, 즉 ‘불순종 하는 것’이 안식의 적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1)“순종치 않는 자”(히브리서 3:18), 2)“믿지 않는 자”(히브리서 3:19)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잘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충성하는 자”(히브리서 3:1), 2)“믿는 자들”(히브리서 4:3), 3)“자기 일을 쉬는 자”(히브리서 4:10),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는 자(히브리서 4:11)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피곤해도 약 먹어 가면서 계속 일하다가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겠습니까 아니면 병들기 전에 혹은 병 든 후에라도 쉬었다가 다시 일어서서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휴식을 보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까 아니면 돈만 쓰고 휴식을 망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까? 당신은 “안식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식과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과 함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